

‘남북한 공통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의 쟁점 — 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강보선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 이 논문은 제6회 통일국어교육연구회 학술발표대회(2021.08.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I. 머리말
- II.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
- III.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비중
- IV.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내용
- V. 맺음말

I. 머리말

국어교육이 통일 시대를 준비한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통일 이전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남북의 학습자들이 서로의 언어와 언어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질화된 남북한 국어교육을 조금씩 통합시켜 나감으로써 통일 시대의 국어교육을 순조롭게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놓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분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남북의 국어교육이 더 이상 이질화되지 않도록 남북한 국어교육의 통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이 공통으로 사용할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통일의 과정(분단 시기-통일 과도기-통일 국가 시기)(강보선, 2020ㄴ)별로 이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결과물이 하나씩 나오고 있다.¹⁾ 이들 결과물은 현실에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중요한 가

1) 통일 후 과도기에 사용할 '남북한 공통 국어과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김진숙·김민성·박

치가 있다. 남북 통합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남북의 공통점을 계승하고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방안들은 통일 시대의 국어교육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 흐름의 일환으로 본고는 통일 이전, 특히 ‘분단 시기’²⁾에 남북이 함께 사용할 ‘남북한 공통 초등학교³⁾ 국어 교과서’(이하 ‘공통 초등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무엇이 쟁점이 될 것인지를 ‘어휘 교육’⁴⁾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교육을 상세히 비교하여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공통 초등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남북의 초등학교 국어교육을 비교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이 2013년에 개정한 국어과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과 그에 따라 개발된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남북의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을 비교

창언·이미경·강보선·박수련(2016), 김진숙·박순경·이민형·강보선·주주자·심광택 외(2017)를, 통일 전후 과도기에 개발할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에 대해서는 강보선(2020), 이상일(2020), 진선희(2020), 최미숙(2020)을, 통일 시대에 사용할 초등 국어 교과서에 대해서는 신현재(2015), 통일국어교육연구회(2018, 2020), 한명숙(2017) 등을 참고.

- 2) ‘분단 시기’는 현재와 같이 남북이 독자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시기이며 남북의 교류·협력이 많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남북의 국어교육을 크게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분단 시기에 사용되는 ‘남북한 공통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남북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 3) 북한은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급을 ‘소학교’라 부르고 5년제로 운영한다. 본고에서는 남한의 초등학교와 북한의 소학교를 편의상 ‘남북한 초등학교’라고 명명하였다.
- 4) ‘어휘 교육’의 범위는 단어의 의미·형태를 중심으로 좁게 설정할 수도 있고 단어의 문법적·규범적 측면을 포함하여 넓게 설정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단어를 안다는 것은 단어의 형식(발음과 표기), 의미, 용법 등을 총체적으로 아는 것(Nation, 2013)이라고 보아, ‘어휘 교육’에 단어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발음, 표기, 의미, 용법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한 연구(강보선, 2017;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 2017; 권순희·강보선·정진석·주재우, 2017; 김진숙 외, 2016; 박소은, 2021; 정진석·강보선·권순희·주재우, 2017; 주재우·권순희·강보선·정진석, 2017 등), 북한의 2013 교육강령에 따른 소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거나 이를 남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와 비교한 연구(강보선, 2020 7; 권순희, 2018; 오현아, 2021; 이관규, 2021; 정경화·권순희, 2019; 정혜현·진용성, 2021 등)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 중에서 남북의 초등학교 어휘 교육을 비교한 연구는 드문데, 강보선 외(2017)와 강보선(2017)에서 일부 관련 내용이 다루어진 바 있다. 강보선 외(2017)에서는 남북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문법 교육 내용을 비교하면서 그중 일부로 초등학교 어휘 교육 내용을 다루었다.⁵⁾ 그리고 강보선(2017)에서는 남북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북한의 초·중등 어휘 교육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찰한 후, 남북한 통합 어휘 교육 내용 구성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하였다.⁶⁾ 그러나 이들 논의는 남북의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남북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서 나타나는 어휘 교육의 차이점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동일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교과서를 개발하더라도, 교육과정을 교과서로 구체화하는 방식은 교과서 개발의 목표와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비교만으로는 남북한 초등학교 어휘 교육의 차이점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명시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를 교과서에서 구현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들이 달라지며, 더욱이 교육과정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은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그 실체가 파악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이 아니라 교과서를 대상으로 남북의 어휘 교육을 비교

5) 강보선 외(2017)의 논의 중 ‘어휘 교육’과 관련이 있는 내용은 ‘어휘 교육의 비중과 구체성을 어느 수준에서 정할 것인가’, ‘규범 교육의 비중과 단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등이 남북한의 교육과정 통합 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부분이다.

6) 강보선(2017)에서는 통합의 쟁점 사항으로 ‘한자 교육에 대한 인식’, ‘한자어 사용에 대한 인식’, ‘학습 어휘 목록 제공’, ‘내용 요소의 반복 제시’, ‘위계화의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하고, 통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쟁점을 도출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작업은 ‘공통 초등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어휘 교육과 관련된 남북 교과서의 차이점 중 남북의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파악되는 차이점은 제외하고,⁷⁾ 남북의 교과서 비교를 통해서만 비로소 드러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그리고 남북의 차이점을 모두 나열하기보다는 ‘공통 초등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주요하게 쟁점이 될 만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한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2015)에 따라 개발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북한은 2013 개정 교육강령(교육위원회, 2013)에 따라 개발된 소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기로 한다.

1. 남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

남한의 초등 국어 교과서는 『국어』와 『국어 활동』으로 구성된다.⁸⁾ 『국

7) 남북의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서 파악되는 어휘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강보선(2017), 강보선 외(2017)를 참고.

8) 『국어』(교육부, 2017ㄱ, 2017ㄴ, 2017ㄷ, 2017ㄹ, 2017ㅁ, 2017ㅂ, 2017ㅅ, 2017ㅇ, 2017ㅈ, 2017ㅊ, 2018ㄱ, 2018ㄴ, 2018ㄷ, 2018ㄹ, 2018ㅁ, 2018ㅂ, 2018ㅅ, 2018ㅇ, 2018ㅈ, 2018ㅊ, 2019ㄱ, 2019ㄴ, 2019ㄷ, 2019ㄹ, 2019ㅁ, 2019ㅂ, 2019ㅅ, 2019ㅇ)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기별로 2권(㉞ 권, ㉟ 권)씩 존재하는 반면, 『국어 활동』(교육부, 2017ㄱ, 2017ㄴ, 2017ㄷ, 2017ㄹ, 2017ㅁ, 2017ㅂ, 2017ㅅ, 2017ㅇ, 2018ㄱ, 2018ㄴ, 2018ㄷ, 2018ㄹ)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기별로 1권씩 존재한다.

어』와 『국어 활동』에서의 어휘 교육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 실태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어』에서는 어휘 교육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방식은 어휘에 주목하여 어휘를 주된 교육 내용으로 삼아 교수·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식은 단원의 목표와 관련된 어휘를 학습 활동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거나, 단원의 목표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하나의 제재나 활동으로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경우⁹⁾를 말한다.

『국어』에서 어휘를 가르치는 단원을 대상으로 어휘 교육의 방식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어휘 교육 내용 요소를 다루고 있는지를 분석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국어』의 단원별 어휘 교육의 내용 요소 및 방식

학년	학기	단원명	어휘 교육 내용 요소	교육 방식
1	2	1. 소중한 책을 소개해요	날말의 받침	간접
		2.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내요	흉내 내는 말	직접
		3. 문장으로 표현해요	날말의 받침	간접
		6. 고운 말을 해요	기분을 나타내는 말	간접
		9. 겪은 일을 글로 써요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말	간접
2	1	3. 마음을 나누어요	마음을 나타내는 말	간접
		4. 말놀이를 해요	날말의 소리와 뜻, 날말에 대한 관심	직접
		5. 날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써요	소리가 비슷한 날말	직접
		6. 차례대로 말해요	시간을 나타내는 말	간접

- 9) 예를 들어 3학년 2학기 2단원은 글을 읽고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읽기 단원인데 읽기의 제재로 ‘날씨를 나타내는 토박이말’이 수록되어 있다. 단원의 목표는 중심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지만 이를 위한 읽기 제재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이 수록된 것이다. 이는 간접적인 교수·학습으로 볼 수 있다.

3		7. 친구들에게 알려요	받침이 뒷말 첫소리가 되는 낱말	간접
		9. 생각을 생생하게 나타내요	꾸며 주는 말	간접
		10.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고운 말	간접
	2	3. 말의 재미를 찾아서	흥내 내는 말, 말놀이	직접
		5. 간직하고 싶은 노래	받침이 있는 낱말	간접
		6. 자세하게 소개해요	글자와 다르게 소리 나는 낱말	간접
		8. 바르게 말해요	바른 말(헛갈리기 쉬운 말; 줄임말 사용 자제; 우리말 사랑), 소리와 글자가 다른 낱말	직접
	1	1. 재미가 톡톡톡	감각적 표현	직접
		3. 알맞은 높임 표현	높임 표현	직접
		4. 내 마음을 편지에 담아	마음을 표현하는 낱말, 뜻이 비슷한 낱말	간접
		5.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이어 주는 말	간접
		6. 일이 일어난 까닭	이어 주는 말	간접
		7. 반갑다, 국어사전	국어사전 활용 방법	직접
		9. 어떤 내용일까	낱말의 뜻을 짐작하는 방법	직접
		10. 문학의 향기	감동을 나타낼 수 있는 낱말	간접
	2	2. 중심 생각을 찾아요	낱씨와 관련된 낱말, 반대말, 비슷한 말	간접
		4. 감동을 나타내요	감각적 표현	직접
		5. 바르게 대화해요	높임 표현	간접
		7. 글을 읽고 소개해요	낱말의 뜻 짐작하기, 국어사전에서 낱말의 뜻 찾기	간접
		8. 글의 흐름을 생각해요	비슷한 말	간접
4	1	7. 사전은 내 친구	사전에서 낱말 찾기, 낱말의 의미 관계(반의어, 상하위어, 유의어)	직접
5	1	5. 글쓴이의 주장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동형어, 다의어	직접
		8. 아는 것과 새롭게 안 것	낱말 확장 방법	직접

2	4. 겪은 일을 써요	호응하는 서술어가 따로 있는 낱말	간접
	7.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요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직접
	8. 우리말 지킴이	바른 국어 사용(줄임 말, 외국어 남용, 사물 존대)	직접
6	5. 속담을 활용해요	속담	직접
	6. 내용을 추론해요	상황에 따른 낱말의 의미, 다의어, 동형어	간접
	7. 우리말을 가꾸어요	바른 국어 사용(욕설, 비속어, 외국어 남용, 줄임 말, 언어 예절)	직접
	2.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관용 표현(관용어, 속담)	직접

〈표 1〉을 보면, 『국어』(전체 114개 단원으로 구성)의 경우 18개 단원에서 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21개 단원에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어휘 교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어 활동』의 어휘 교육을 살펴보자. 『국어 활동』은 ‘기본 학습 관련 활동’과 ‘기초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휘 교육은 ‘기초 다지기’에서 직접적인 방식으로 교수·학습된다. ‘기초 다지기’의 경우 1학년은 ‘글씨 쓰기 연습’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발음, 낱말,¹⁰⁾ 맞춤법, 글씨 쓰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어 활동』에서 ‘기초 다지기’를 다룬 단원의 수와, ‘기초 다지기’에서 발음, 낱말, 맞춤, 글씨 쓰기를 다룬 단원의 수를 보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어 활동』의 기초 다지기에 나타나 항목별 단원 수

학년 \ 항목	기초 다지기	발음	낱말	맞춤법	글씨 쓰기
1-1	2	0	0	0	2

10) ‘낱말’에서 다루는 내용은 ‘표준어와 방언’, ‘어휘장’, ‘토박이 말’, ‘고운 말’, ‘유의어’ 등이다.

1-2	4	0	0	0	4
2-1	11	1	3	0	7
2-2	11	3	1	0	7
3-1	10	2	0	6	2
3-2	9	2	0	5	2
4-1	10	2	2	4	2
4-2	9	2	4	1	2
합계	66	12	10	16	28

〈표 2〉를 보면, 『국어 활동』(전체 79개 단원으로 구성)의 경우 66개 단원에서 ‘기초 다지기’를 설정하고 있는데, ‘글씨 쓰기’를 제외하면 ‘맞춤법’의 비중이 가장 크다. 그러나 ‘맞춤법’에서는 낱말의 표기뿐만 아니라 어미의 표기와 띄어쓰기도 함께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 7개의 단원¹¹⁾을 제외한다면 낱말의 맞춤법은 9개의 단원에서 다루어지는 셈이 되어 ‘기초 다지기’에서는 ‘맞춤법’, ‘발음’, ‘낱말’이 대체로 10개 안팎의 비슷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인 『국어』(교육도서출판사, 2013, 2014 ㄱ, 2014 ㄴ, 2014 ㄷ, 2014 ㄹ, 2016 ㄱ, 2016 ㄴ, 2016 ㄷ, 2016 ㄹ)는 학기별로 단권 체제(다만, 1학년은 학기 구분 없이 1권)이고 남한의 『국어 활동』과 같은 별도

11) 어미의 표기와 관련하여, 3학년 2학기 6단원에서는 어미 ‘-(는)대’와 ‘-(는)데’를, 7단원에서는 ‘-ㄴ게’와 ‘-ㄴ계’를, 9단원에서는 ‘-ㄴ려고/ -ㄴ라고’와 ‘-(으)려고’를, 4학년 1학기 1단원에서는 ‘-ㄴ게’, ‘-ㄴ걸’, ‘-ㄴ까’, ‘-ㄴ꼬’를 다룬다. 그리고 띄어쓰기와 관련하여, 4학년 1학기 3단원과 5단원에서는 의존명사의 띄어쓰기를, 7단원에서는 접미사의 띄어쓰기를 다룬다.

의 보조 교과서는 없다. 북한의 『국어』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총 132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휘 자체를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원, 즉 직접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단원은 단 4개뿐이다. 이들 단원의 단원명과 어휘 교육 내용 요소는 <표 3>과 같다.

<표 3> 북한의 『국어』에서 어휘를 직접적으로 교수·학습하는 단원

학년	학기	단원명	어휘 교육 내용 요소
4	1	제3과 본떠말을 넣어 생동하게	본떠말
		제14과 정확히 가려쓰자요	섞갈리기 쉬운 말
5	1	제11과 우물안의 개구리	속담
		제15과 정확히 가려쓰자요	섞갈리기 쉬운 말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국어』에서 ‘본떠말’, ‘섞갈리기 쉬운 말’,¹²⁾ ‘속담’만을 직접적으로 교수·학습한다. 그렇다고 북한이 어휘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북한은 매 단원에 있는 ‘학습 활동’¹³⁾을 통하여 간접적인 교수·학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북한의 『국어』에서 간접적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어』의 단원 구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어』는 단원마다 10개 안팎의 학습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학습 활동에는 한 차시의 수업 시간이 배정된다. 예를 들어, 2학년 1학기 1과인 ‘공화국기발’은

- 12) ‘섞갈리기 쉬운 말’은 남한에서는 ‘헛갈리기 쉬운 말’로 표현된다. 교과서와 달리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삭갈리기 쉬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섞갈리다’와 ‘삭갈리다’가 동의어이다.
- 13) 북한에서는 ‘학습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북한은 국어 교과서가 “기본글교재와 그에 대한 학습안내교재, 상식교재, 연습교재”(교육위원회, 2013)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기본글교재’는 남한의 본문 텍스트에 해당하고, ‘학습안내교재, 상식교재, 연습교재’는 넓게 보면 남한의 ‘학습 활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0개의 학습 활동(총 10차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학습 활동에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표 4>와 같이 다루고 있다.¹⁴⁾

<표 4> 북한의 소학교 2학년 1학기 『국어』의 1과 구성 내용

수업 시간	학습 활동 내용	교수 형태	어휘 관련 내용
1	① 먼저 알아보기	수업	-
2	② 본문의 내용을 알아보기	"	-
3	③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기	"	발음
4	④ 본문을 읽기	"	-
5	⑤ 맞춤법에 맞게 쓰기	"	표기
6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기	"	의미
7	⑦ 쉬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기	"	쉬갈리기 쉬운 말
8	⑧ 시려공부	"	-
9	⑨ 본문내용을 자기말로 말해보기	"	-
10	⑩ 기발알아맞추기 놀이	활동	-

<표 4>를 보면, 1과는 어휘와 관련하여 ‘발음, 표기, 의미, 쉬갈리기 쉬운 말’을 4차시 동안 가르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소학교 『국어』 전체¹⁵⁾를 학년별, 단원별로 분석하면 다음 <표 5>와 같다(둥그라미는 해당 내용이 있음을 의미함).¹⁶⁾

14) <표 4>에 제시된 ‘수업 시간’, ‘학습 활동 내용’, ‘교수 형태’는 김현호(2016: 25)에서 인용하였다. 다만 <표 4>의 ‘학습 활동 내용’은 김현호(2016)에서는 ‘수업 내용’으로 명명하고 있다.

15) 북한의 소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는 한글 학습만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이하 동일.

16) <표 5>에서 ‘쉬갈’은 ‘쉬갈리기 쉬운 말’을, ‘생동’은 ‘생동한 표현’을 가리킨다. 그리고 ‘기타’에는 ‘어휘장 관련 내용, 속담, 본판말, 어휘 사용, 놀이를 통한 어휘 학습 등’이 해당된다.

〈표 5〉 북한 『국어』의 학습 활동에 나타난 어휘 교육 내용

학 년	단 원	의 미	쉬 갈	표 기	발 음	생 동	기 타	학 년	단 원	의 미	쉬 갈	표 기	발 음	생 동	기 타
2-1	1	○	○	○	○			2-2	16						
	2								17	○	○	○			
	3	○	○	○	○		○		18						
	4						○		19						
	5						○		20						
	6	○	○	○	○				21	○	○	○	○		○
	7								22						
	8	○	○	○	○		○		23	○	○	○	○		○
	9						○		24						○
	10						○		25						○
	11						○		26	○	○	○			○
	12	○	○	○	○				27	○	○	○			○
	13	○	○	○			○		28						
	14														
	15	○	○	○	○		○								
3-1	1	○	○	○				3-2	17	○	○	○		○	
	2								18						○
	3								19	○	○	○			○
	4	○	○		○				20						
	5								21	○					
	6	○	○	○					22						
	7						○		23	○	○			○	
	8	○				○			24						
	9								25						
	10	○	○						26						○
	11						○		27	○		○	○	○	
	12	○	○	○			○		28						
	13								29						
	14														
	15	○	○			○	○								
	16														

4-1	1	○					○	4-2	16	○			○		○	
	2								17							
	3						○		18	○						
	4	○					○		19							
	5								20							
	6						○		21	○						○
	7								22							
	8	○					○		23	○						
	9								24							
	10						○		25	○						
	11								26							
	12	○							27	○						
	13								28							
	14		○				○									
	15															
5-1	1	○					○	5-2	16	○						
	2	○					○		17	○	○				○	
	3								18							
	4						○		19							
	5								20							○
	6								21							
	7	○					○		22	○					○	
	8								23							
	9								24							
	10								25							
	11						○		26							○
	12								27							
	13						○		28							
	14						○									
	15		○													

〈표 5〉를 보면, 북한의 『국어』(2학년부터 5학년까지 113개 단원으로 구성)에서는 어휘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데, 그 내용은 ‘의미(40개 단위), 쉬갈리기 쉬운 말(24개 단위), 표기(19개 단위), 생동한 표현(16개 단위), 발음(10개 단위)’의 순서로 많이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를 토대로, 다음 III장과 IV장에서는 남북의 어휘 교육에서 어떤 차이점이 드러나는지, 이로 인하여 ‘공통 초등 교과서’ 개발 과정에서 어떤 쟁점이 야기될 수 있는지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III.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비중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남북한은 교과서에서 어휘를 직간접적으로 교수·학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실태를 비교해 보면 어휘 교육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북한이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 교육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 이를 북한 교과서의 학습 활동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자.

II장 2절에서도 간단히 언급했듯이 북한은 교과서의 개별 학습 활동마다 한 차시가 배정된다. 따라서 전체 학습 활동 중에 어휘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어휘 교육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2학년 교과서는 복습 단위¹⁷⁾를 제외하면 총 28개의 단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각 단원의 학습 활동 수를 종합하면

17) 복습 단원은 학기별 교과서의 가장 끝에 ‘배운것을 다져보지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수업 시수는 총 1~2시간이 배정된다.

모두 234개이고, 그중에서 단어의 의미, 발음, 표기, 섞갈리기 쉬운 말 등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학습 활동 수는 모두 67개이다(〈표 6〉 참조).¹⁸⁾ 이는 수업 시간 중 30% 가까운 시간을 어휘 교육에 할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북한 2학년 교과서의 단원별 어휘 관련 학습 활동

단원	1학기 학습 활동	단원	2학기 학습 활동
1	③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지요	17	④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⑤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⑧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지요
	⑦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21	③ <지, 치>소리되기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3	③ 이어나기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⑦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지요
	⑦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⑪ 단어찾기놀이를 해보지요
	⑩ 두 글자 단어로 말꼬리잇기를 해보지요	23	④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4	⑦ 속담을 공부하지요		⑥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5	② 단어로 말을 만들어보지요		⑦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지요
	④ 알맞는 말을 넣어 문장을 만들어보지요		⑧ 속담을 공부하지요
		24	⑧ 식생활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보지요

18) 학습 활동 중에는 다른 내용을 다루면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본문을 바로 읽어보지요’와 같은 학습 활동에서는 ‘다음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세요’와 같이 단어의 발음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룬다. 그러나 북한 교과서 분석 과정에서는 학습 활동 내용 중 일부만 어휘를 다루는 경우는 제외하고 어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습 활동만을 어휘 관련 학습 활동으로 분석하였다. 만약에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다루고 있는 학습 활동까지 포함하면 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다.

6	③ 《ㄱ》가 들어간 단어의 발음을 알아보지요	25	⑧ 잠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보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26	③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⑧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1)		⑤ 소리닿기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⑨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2)		⑥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⑩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⑧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8	③ 소리빠지기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27	⑨ 물음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보지요
	⑤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⑩ 말찾기놀이를 해보지요
	⑥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⑦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⑨ 합친말은 어떤 말인가 알아보지요		⑧ 거센소리되기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9	⑩ 합친말만들기놀이를 해보지요		⑨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⑦ 시간을 나타내는 말을 알아보지요		⑩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을 찾아보지요
10	② 두개 문장을 바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지요		
11	⑦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알아보지요		
	⑧ 가족, 친척, 부르는 말찾기 놀이를 해보지요		
	⑨ 단어기억놀이를 해보지요		
12	③ 된소리되기발음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⑧ 된소리로 발음되는 단어를 익히지요		
	⑨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13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⑦ 섞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 쓰지요		
	⑧ 셈을 셀 때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지요		

15	③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지요
	⑤ 맞춤법에 맞게 쓰지요
	⑥ 단어들의 뜻을 알아보지요
	⑧ 쉬갈리기 쉬운 말을 가려쓰지요
	⑩ 소리와 모양을 본떠말을 찾아보지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학년의 교과서도 분석해 보면 3학년은 20%(241개 중 49개), 4학년은 16%(238개 중 37개), 5학년은 18%(234개 중 43개)가 어휘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다. 이처럼 2학년부터 5학년까지의 학습 활동 중 평균 21%가 어휘 관련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 비중이 높다는 것은 학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남한의 교과서에서 어휘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치로 정확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국어』와 『국어 활동』의 단원 구성 체제를 볼 때 어휘 교육의 비중이 북한만큼 높지는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⁹⁾

이처럼 북한 교과서가 남한 교과서에 비해 어휘 교육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어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북한의 교육 철학 때문이다. 최영란(2010: 263)에 따르면, “소학교 국어교육에서 기본은 어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소학교는 정규 교육의 첫 걸음을 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어휘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국어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19) 『국어』는 단원 전개가 ‘준비 학습-기본 학습-실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어 활동』은 ‘기본 학습 연계 활동-기초 다지기’로 구성되어 있다(교육부, 2017 ○). 이 중에서 어휘를 주요 내용으로 삼는 곳은 ‘기초 다지기’ 정도로 볼 수 있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어휘가 부수적으로 일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휘 교수·학습에 할애되는 수업 시수는 많은 편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것이 북한의 소학교 어휘 교육의 철학”이다.²⁰⁾

둘째, 북한의 교육과정에서 어휘 교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어휘’가 남한과 마찬가지로 독립 영역은 아니지만 ‘읽기 및 쓰기교육’ 영역(남한의 ‘읽기’ 영역에 해당)의 내용 범주 중 하나로 ‘어휘 교육’을 설정하고 있다.²¹⁾ 또한 교육과정의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는 학습 활동에서 ‘어휘표현’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²²⁾

셋째, 북한 교과서의 단원 구성이 읽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북한 교과서의 영역별 단원 수를 보면, <표 7>과 같이 평균 40%가 넘는 단원이 읽기 단원이다. 읽기 단원이 많다 보니 ‘읽기 및 쓰기교육’ 영역의 내용 범주 중 하나인 어휘 교육이 자연스럽게 강조된다.

<표 7> 북한 『국어』의 영역별 단원 수(비율)

	읽기	말하기	듣기	글짓기	글씨쓰기	합계
2학년	12(43%)	7(25%)	2(7%)	5(18%)	2(7%)	28(100%)
3학년	12(41%)	7(24%)	2(7%)	6(21%)	2(7%)	29(100%)
4학년	13(46%)	5(18%)	3(11%)	7(25%)	0(0%)	28(100%)
5학년	11(39%)	5(18%)	4(14%)	8(29%)	0(0%)	28(100%)

20) 최영란(2010)에서는 ‘조선어 교육’, ‘인민학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를 각각 ‘국어교육’, ‘소학교’로 바꾸어 인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21) ‘읽기 및 쓰기교육’ 영역의 내용 범주는 ‘맞춤법교육’, ‘글읽기기초교육’, ‘어휘교육’, ‘글분석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22)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 항목에서 ‘학습안내교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가 안내되어 있고 그중에 ‘어휘표현’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밑줄은 연구자).

“글교재에 대한 학습안내교재는 글교재뒤에 읽기 및 쓰기, 어휘표현, 내용 이해, 듣기, 말하기, 글짓기, 글씨쓰기로 나누어 구성하며 매 항목을 교재에 다 얹히지 말고 과마다 중심 항목을 두면서 언어능력들이 골고루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남북 교과서의 어휘 교육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 어휘 교육은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어휘 교육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면 매 단원에서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다루거나 어휘 교수·학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²³⁾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어휘 교육의 비중을 작게 생각하면 교과서 본문의 낱개 및 처마 공간을 주로 활용하는 방안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두 방안을 절충하여 학년별로 어휘 교육의 비중을 달리 하거나 제3의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IV. 남북한 교과서의 어휘 교육 내용

남북한 어휘 교육 내용의 차이점은 교육과정 비교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나,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비로소 그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본문 단어의 발음과 표기’, ‘헛갈리기 쉬운 말’,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 ‘의성의태어’ 등과 관련된 차이점은 교과서 비교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이들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먼저 각 내용이 남북한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하고, 이어서 남북한 교과서에서 드러나는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3) 중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교육출판사에서 발간한 『어문』 교과서의 단원은 ‘도입부’, ‘제재 및 학습활동부’, ‘어휘부’, ‘언어활동부’, ‘확장부’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어휘부’는 제재에 사용된 어휘 중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어휘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어휘를 ‘단어 점검’이라는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정혜승, 2015).

1. 본문 단어의 발음과 표기

남북한 교육과정에서는 단어의 발음 및 표기와 관련된 내용을 공통적으로 다룬다. 남한은 초등학교 1~2학년군 문법 성취기준인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에서, 북한은 ‘읽기 및 쓰기 교육’ 영역에서 발음과 표기를 다룬다. 남한이 1~2학년군에서 발음과 표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북한은 소학교 전체 학년에서 발음과 표기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²⁴⁾

그러나 교육과정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교과서에서는 완화되어 나타난다. 남한도 『국어 활동』의 ‘기초 다지기’를 통해 ‘발음’(2학년부터 4학년까지)과 ‘맞춤법’(3학년부터 4학년까지)을 여러 학년에 걸쳐 다루기 때문이다(〈표 2〉 참조).

이처럼 남북의 교과서에서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중요하게 다룬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북한은 남한과 달리 교과서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교육하기 위하여 별도의 학습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발음’의 경우, 북한은 〈그림 1〉, 〈그림 2〉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발음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를 선정하여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지요’라는 학습 활동에서 단어의 발음을 교수·학습한다(〈그림 1〉과 〈그림 2〉에서 다루어지는 단어들은 모두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이다. 이는 〈그림 3〉과 〈그림 4〉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4) 북한은 소학교 전체 학년에서 발음과 표기를 다루지만 다루는 내용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다. 1학년에서는 ‘글자의 발음과 표기’를, 2~3학년에서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4~5학년에서는 ‘단어의 표기’를 다룬다.

3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아요

❖ 다음단어들을 읽어보세요. 쓴 그대로 읽는 단어와 쓴 것과 다르게 읽는 단어들을 갈라보세요.
공화국, 기발, 날려요, 꽃마다, 휘날리며, 좋은, 만만세

❖ 바로 읽어보세요.
푸른 하늘 높이, 가는 꽃마다, 우리에게 언제나, 원추놈들한테는, 공화국 만만세

❖ 단어 발음을 정확히 하면서 열동무와 한줄씩 엮바꾸어 읽어보세요.

〈그림 1〉 2학년 1과

3 단어들을 바로 읽어보아요

❖ 어떻게 발음하는 것이 옳을까요?

야! 손풍금

야! 숨풍금

날 이라고 불러줘.

• 틀리게 발음하면 안돼요.
만경대, 발공장, 손목, 눈보라, 만풍년, 집게

〈그림 2〉 2학년 15과

마찬가지로 ‘표기’의 경우에도, 북한은 〈그림 3〉, 〈그림 4〉와 같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서 표기에 유의해야 하는 단어를 선정하여 ‘맞춤법에 맞게 쓰자요’라는 학습 활동에서 단어의 맞춤법을 교수·학습한다.

9 맞춤법에 맞게 쓰자요(2)

❖ 밑줄친 글자들을 주의하면서 읽고 쓰세요.
옛날, 올리것대요, 데려오라고, 틀러베고,
없네, 맨놓고나서

〈그림 3〉 2학년 6과

5 맞춤법에 맞게 쓰자요

❖ 알맞는 카드를 넣어 문장을 완성하자요.

비로스 비로시 비로세

《처음으로》의 주인공...

철이는 영남이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림 4〉 2학년 15과

이처럼 북한은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별도의 학습 활동에서 다룬다. 북한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통하여 본문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교수·학습한다면, 남한은 교과서가 아니라 수업 시간에 교사를 따라 본문을 읽는 활동이나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 본문 단어의 발음과 표기

를 교수·학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는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문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교수·학습하기 위하여 교과서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고 수업 시간에 읽기나 받아쓰기 활동을 통해 교수·학습하는 방안, 또는 이 둘을 절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것인데 어느 방안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2. 헛갈리기 쉬운 말

남한의 교육과정에서는 ‘헛갈리기 쉬운 말’이 성취기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고, 초등학교 1~2학년 문법 영역 성취기준인 “소리와 표기가 다를 수 있음을 알고 낱말을 바르게 읽고 쓴다.”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이 다루어진다. 반면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2학년부터 5학년까지 매 학년의 ‘기초원리지식교육’ 영역에서 ‘삭갈리기 쉬운 말’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표 8〉 ‘기초원리지식교육’ 영역에서의 학년별 ‘삭갈리기 쉬운 말’ 관련 내용

학년	내용
2	• 우리 글 맞춤법의 개념과 합침말적기, 토적기, <u>삭갈리기 쉬운 말들의 맞춤법을 알도록 한다.</u>
3	• 우리 글 맞춤법에서 줄어든 말, 받침단어, <u>삭갈리기 쉬운 말들의 맞춤법을 알도록 한다.</u>
4	• 우리 글 맞춤법에서 소리같은말, 《이, 히》로 끝나는 말, <u>삭갈리기 쉬운 말에 대하여 알도록 한다.</u>
5	• 우리 글 맞춤법에서 모음글자들과 <u>삭갈리기 쉬운 말들의 맞춤법을 알도록 한다.</u>

〈표 8〉을 보면, 북한이 ‘삭갈리기 쉬운 말’을 맞춤법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리나 형태가 비슷하여 헛갈리기 쉬운 단어만을 교수·학습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소학교 교육과정의 ‘3. 교과서집필에서 지켜야 할

원칙'에서는 “교재구성에 삭갈리기 쉬운 단어와 토(맞춤법을 가려서 써야 할 단어와 토)를 목적의식적으로 포함시켜 교육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교육위원회, 2013)라고 하여, ‘삭갈리기 쉬운 말’을 ‘맞춤법을 가려서 써야 할 단어’와 ‘뜻을 가려서 써야 할 단어’로 구분하여 교과서에 포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의 교육과정에서는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과 ‘비슷한 의미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을 구분하고 있고 그 둘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교과서의 경우, 남한은 비록 교육과정에서는 ‘헛갈리기 쉬운 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2학년 교과서에서는 학기별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표 9>에서와 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표 9> 남한 『국어』의 헛갈리기 쉬운 말

학기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	학기	비슷한 의미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
2-1	다치다-달히다, 반드사-반듯이, 식히다-시키다, 거름-걸음, 이따가-있다가, 놀이다-느리다, 맞히다-마치다, 가차-같이, 깊다-깊다, 불이다-부치다, 갈다-갔다, 맞다-말다, 바치다-받치다	2-2	다르다-틀리다, 적다-작다, 잊어버리다-잃어버리다, 많다-크다, 가리키다-가르치다 ²⁵⁾

<표 9>를 보면, 남한은 헛갈리기 쉬운 말을 2학년에서 다루는데, 1학기에는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소리가 비슷한 낱말(즉,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을 다루고 있고, 2학기에는 교육과정에서는 언급이 없었던 의미가 비슷한 낱말(즉, 비슷한 의미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말)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남한이 헛갈리기 쉬운 말을 2학년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면, 북한은 교육과정에 따라 여러 학년의 교과서에서 쉬갈리기 쉬운 말을

25) ‘가리키다-가르치다’는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헛갈리기 쉬운 단어의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2학기가 아닌 1학기 교과서에서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다루고 있다. 북한의 교과서에서 다루는 섞갈리기 쉬운 말을 그 유형에 따라 구분해 보면 <표 10>과 같다.

<표 10> 북한 『국어』의 섞갈리기 쉬운 말

학년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섞갈리기 쉬운 말	비슷한 의미로 인해 섞갈리기 쉬운 말
2	가르치다-가리키다, 곳-곧, 받치다-바치다, 거름-걸음, 반드사-반듯이, 너머-넘어, 비끼다-비키다, 마치다-맞히다	부러지다-부서지다, 마시다-먹다, 들-벌, 굶다-두껍다, 가늘다-얇다, 생각-궁리, 크다-많다, 작다-적다, 자주-자꾸, 흰하다-흰하다, 사정없이-용서없이, 따스하다-떠뜻하다, 노래-음악, 폭탄-포탄, 숙제-과제
3	쫓다-좃다-쫓다, 거치다-걸치다, 메다-매다, 새다-세다, 쌓이다-싸이다	삶-생, 번쩍-반짝, 아름답다-곱다, 저녁-밤, 넓다-크다, 뽐내다-우쭐대다, 가라앉다-잠기다, 인사-경례, 고개-머리, 버젓이-뻑뻑이, 요동-소동, 두텁다-두껍다
4	비바람-빗바람, 겨누다-겨루다, 다리다-달이다, 벗기다-베끼다, 질기다-질리다, 바라다-바래다, 주위-주의, 구원-구완, 가리다-가르다, 저화-저의	덜개-뚜껑-마개, 임무-의무, 출현-출연
5	부치다-붙이다, 해답-회답, 쪼각-쪼박, 알다-약다	발명-발견, 나약하다-연약하다, 너비-넓이-폭, 스미다-짚다, 성기다-설피다, 시범-모범, 잃다-잊다, 베다-자르다-썰다, 틀리다-다르다, 쾌활하다-유쾌하다

발음이 비슷하거나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휘 사용의 ‘정확성’을 위하여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특히 의미가 비슷한 단어(이하 ‘유의어’)의 경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의어를 변별하는 활동은 어휘력 확장과 사고력 신장에도 기여한다.²⁶⁾

26) 김광혜(1998: 6)에서는 유의어들을 비교, 분석하는 훈련 과정을 통하여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언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사상(事象)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울 수 있으며, 그 의미를 기술해 내기 위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력과 통찰력이 형성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신명선(2008)에서도 유의어 변별 활동이 학습자의 사고력 신장과 언어 의식 고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따라서 유의어 교육이 어휘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형태는 같지만 남북 간 의미나 용법이 일부 다른 단어가 존재하는 만큼,²⁷⁾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 유의어 변별 교육을 다루는 것은 더욱 중요해진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야 하는가이다.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는 유의어를 특정 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안, 매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다루는 방안, 제3의 방안(해당 단어가 교과서에 등장할 때마다 변별이 필요한 유의어와 함께 다루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인해 헷갈리기 쉬운 단어들을 어떻게 다룰지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

북한에서의 ‘생동한 표현’은 『조선말대사전』을 참고할 때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실감있고 생생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생동한 표현’에 정확히 대응하지는 않지만 유사하게 대응하는 남한의 내용으로는 ‘감각적 표현’²⁸⁾을 들 수 있다.

‘감각적 표현’은 남한 교육과정의 초등학교 3~4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인 “시각이나 청각 등 감각적 표현에 주목하며 작품을 감상한다.”에서 다루어진다. 남한이 ‘감각적 표현’을 문학 영역에서 다루는 반면 북한은 ‘생동한 표현’을 주로 읽기 영역과 쓰기 영역에서 다루고 있다.²⁹⁾ 즉 북한은 문학

점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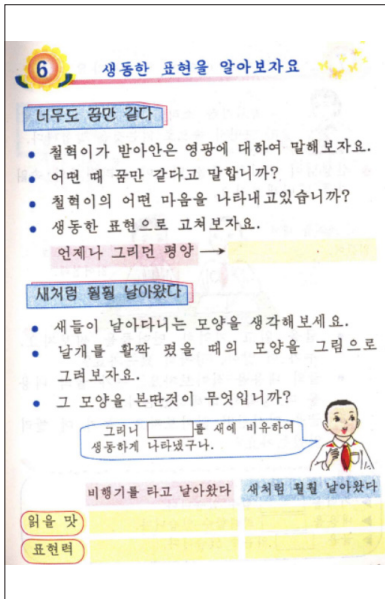
27) 예를 들어 ‘늪은이’, ‘소행’, ‘방조’의 경우, 남쪽에서 ‘늪은이’는 비하의 의미로, ‘소행, 방조’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북쪽에서는 ‘늪은이’에 비하의 의미가 없고, ‘소행’과 ‘방조’에도 부정적 의미가 없다(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2019).

28) 남한 교과서에서 ‘감각적 표현’은 “사물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교육부, 2018 ㄱ: 33)으로 풀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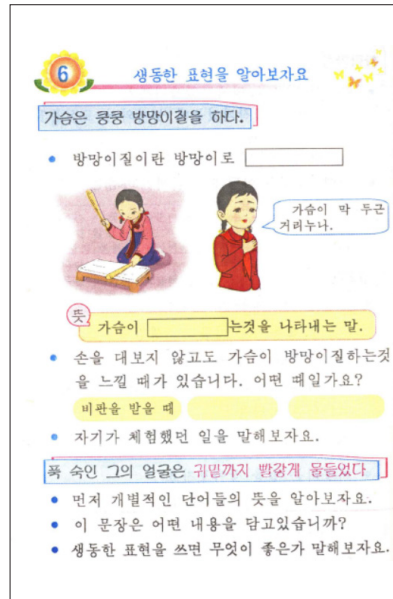
29) 북한의 교육과정 중 4학년의 ‘읽기 및 쓰기교육’ 영역에서는 “교재에서 표현이 생동한 부

작품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생동한 표현을 이해하는 것과 문장과 글에서 생동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교과서의 경우, 남한은 교육과정에 따라 3학년(1학기 1단원, 2학기 4단원)에서 ‘감각적 표현’을 가르치는데, 시나 이야기에 사용된 감각적 표현이 주된 교육 대상이다. 반면 북한은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학년보다 더 많은 학년(3, 4, 5학년)에서, 그리고 여러 단원에 걸쳐 ‘생동한 표현’을 가르치고 있고(〈표 5〉 참조), ‘생동한 표현을 알아보지요’라는 학습 활동을 별도로 마련할 만큼 교육 비중이 크다.



〈그림 5〉 3학년 8과



〈그림 6〉 2학년 15과

분을 찾고 본뜻과 비유적인 뜻을 이해할수 있도록 한다.”를, ‘글짓기교육’ 영역에서는 “일반서술문에 속담, 표현을 넣어 생동한 문장으로 고쳐쓸수 있도록 한다.”를 교육 내용으로 삼는다. 그리고 5학년의 “읽기 및 쓰기교육” 영역에서는 “일반서술문에 속담, 표현을 넣어 생동한 문장으로 고쳐쓸수 있도록 한다.”를 교육 내용으로 삼고 있다.

이처럼 북한 교과서에서 ‘생동한 표현’을 강조하는 이유는 ‘생동한 표현’의 핵심인 ‘생동성’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생동성’은 “일정한 사상을 실지 눈으로 보고 산 체험으로 느끼는 것처럼 강한 인상과 감흥을 불러일으키고 실감있는 표상을 가질수 있게 나타내는 표현적 효과”(리정용, 2005: 199)로서, ‘생동성’을 지닌 ‘생동한 표현’은 사람들이 북한의 사상을 내면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이를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생동한 표현’을, 남한은 ‘감각적 표현’을 다룬다는 점에서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 ‘생생한 표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 자체는 큰 논란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생동한 표현’과 ‘감각적 표현’의 의미역 차이,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³⁰⁾을 바라보는 관점 차이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의미역 차이의 경우, <그림 5>에서처럼 북한은 ‘너무도 꿈만 같다’를 ‘생동한 표현’으로 보지만 남한은 이를 ‘감각적 표현’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처럼 ‘생동한 표현’이 ‘감각적 표현’보다 의미역이 넓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 ‘생동한 표현’과 ‘감각적 표현’ 중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할지가 논의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관점 차이의 경우,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의 효과는 이념적인 것인가, 아니면 수사적인 것인가,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은 문학 작품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다른 장르에서도 다루어져야 하는가,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은 말과 글에서 필수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수의적인 것인가 등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 그 이후에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을 ‘공통 초등 교과서’에 어느 정도의 위상으로 다룰 것인지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0) ‘생동한 표현’과 ‘감각적 표현’의 의미역이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동일.

4. 의성의태어

‘의성의태어’는 남한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2학년 문학 영역 성취기준인 “여러 가지 말놀이를 통해 말의 재미를 느낀다.”에서 다루어지기 때 문에 교과서에서도 1학년 2학기 2단원과 2학년 2학기 3단원에서 ‘흥내 내는 말’로 다루어진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의성의태어’에 해당하는 ‘본뎨말’이 교육과정에서는 3학년 ‘기초원리지식교육’의 성취기준인 “먹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 설과 관 련된 말, **본뎨말**, 지형지물을 나타내는 말, 식물을 나타내는 말을 알도록 한 다.”에서 단 한 번 언급되나 교과서에서는 여러 학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다 루어진다.

〈표 11〉 북한 『국어』의 ‘본뎨말’ 관련 학습 활동

학년	단원	학습 활동
2	15	⑩ 소리와 모양을 본뎨말을 찾아보지요
3	7	⑥ 본뎨말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⑦ 본뎨말찾기놀이를 하지요
4	3	① 생동하게 안겨와요 ② 눈앞에 안겨와요(1) ③ 눈앞에 안겨와요(2) ④ 쟁쟁히 들려와요(1) ⑤ 쟁쟁히 들려와요(2) ⑥ 글속에서 본뎨말을 찾아보지요 ⑦ 자연현상과 어울리는 본뎨말을 찾아보지요 ⑧ 본뎨말을 찾지요
5	26	⑩ 본뎨말의 여러가지 쓰임에 대하여 알아보지요

북한 교육과정에 따르면 ‘본딤말’은 3학년 교과서에서 한 번 다루면 충분할 것이나 <표 11>에서처럼 북한은 3학년 외에 2학년, 4학년, 5학년 교과서에서도 ‘본딤말’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심지어 4학년 3단원은 단원명이 “본딤말을 넣어 생동하게”로, ‘본딤말’을 하나의 독립 단원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교과서에서 ‘본딤말’을 강조하는 것은 앞서 ‘생동한 표현’에서 잠시 언급한 ‘생동성’과 관련이 있다. 북한은 “본딤말은 생동성을 보장하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한다”(리정용, 2005: 200)라고 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생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본딤말’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의성의태어’의 위상과 교육 목적이 남북 교과서에서 다를 것을 고려할 때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 ‘의성의태어’를 어떻게 다룰지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의성의태어’를 ‘생동성’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만큼, ‘의성의태어’는 ‘생동한 표현’과 연관 지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V. 맺음말

지금까지 남북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휘 교육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분단 시기에 남북이 함께 사용할 ‘공통 초등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될 만한 요소를 비중의 측면, 내용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파악한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휘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본문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셋째, ‘헛갈리기 쉬운 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넷째,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섯째, ‘의성의태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들 쟁점 중에는 ‘공통 초등 교과서’의 취지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어휘 교육의 비중’의 경우, 남북의 언어 차이가 어휘 영역에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지금 남한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 비중보다는 ‘공통 초등 교과서’에서의 어휘 교육 비중이 더 커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습자들은 ‘공통 초등 교과서’의 어휘 교육을 통하여 어휘 교육에서 일반적으로 강조하는 ‘어휘 능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남북의 어휘가 발음, 표기, 의미, 용법 등에서 보이는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쟁점들의 경우, 어휘 교육의 관점에서 어떻게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어휘 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공통 초등 교과서’의 개발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각각의 쟁점은 그 이면에 남북이 지향하는 국어교육의 관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드러난 현상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관점 차이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본고는 ‘공통 초등 교과서’ 개발의 쟁점을 도출하였을 뿐, 각 쟁점과 관련하여 어느 방안으로 ‘공통 초등 교과서’가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앞으로 각 쟁점과 관련하여 이론적, 실제적 논의에 기반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고는 쟁점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남한의 관점으로 북한의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아마도 북한의 관점으로 남한의 교과서를 분석하게 되면 또 다른 쟁점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분단 시기’에 사용할 ‘공통 초등 교과서’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분단 시기’의 시대적 특성으로 인해 남북한 교과서

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어휘 교육 쟁점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통일 과도기’ 또는 ‘통일 국가 시기’에 남북이 함께 사용할 ‘공통 초등 교과서’를 개발한다면 그 나름의 시대적 특성에 맞게 어휘 교육 쟁점이 새롭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21.10.31. 투고되었으며, 2021.11.13. 심사가 시작되어 2021.12.09.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1. 교육과정 및 교과서

- 교육도서출판사(2013), 『국어 소학교 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4ㄱ), 『국어 소학교 2-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4ㄴ), 『국어 소학교 2-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4ㄷ), 『국어 소학교 3-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4ㄹ), 『국어 소학교 3-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6ㄱ), 『국어 소학교 4-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6ㄴ), 『국어 소학교 4-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6ㄷ), 『국어 소학교 5-1』,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도서출판사(2016ㄹ), 『국어 소학교 5-2』,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부(2015),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7ㄱ), 『국어 1-1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ㄴ), 『국어 1-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ㄷ), 『국어 1-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ㄹ), 『국어 1-2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ㅁ), 『국어활동 1-1』,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ㄴ), 『국어활동 1-2』,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ㄷ), 『국어 2-1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ㅇ), 『국어 2-1 교사용 지도서』,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ㅈ), 『국어 2-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ㅊ), 『국어 2-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ㅋ), 『국어 2-2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ㅌ), 『국어활동 2-1』,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7ㅍ), 『국어활동 2-2』,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ㄱ), 『국어 3-1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ㄴ), 『국어 3-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ㄷ), 『국어 3-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ㄹ), 『국어 3-2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ㅁ), 『국어활동 3-1』,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ㄴ), 『국어활동 3-2』,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ㄷ), 『국어 4-1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ㅇ), 『국어 4-1 나』,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ㅈ), 『국어 4-2 가』, 서울: 미래엔.
- 교육부(2018ㅊ), 『국어 4-2 나』,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8ㄱ), 『국어활동 4-1』,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8ㄷ), 『국어활동 4-2』,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ㄱ), 『국어 5-1 가』,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ㄴ), 『국어 5-1 나』,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ㄷ), 『국어 5-2 가』,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ㄹ), 『국어 5-2 나』,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ㅁ), 『국어 6-1 가』,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ㅂ), 『국어 6-1 나』,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ㅅ), 『국어 6-2 가』, 서울: 미래엔.
 교육부(2019ㅇ), 『국어 6-2 나』, 서울: 미래엔.
 교육위원회(2013), 「제1차 전반적12년제무교육강령(소학교)」, 평양: 교육위원회.

2. 논저

강보선(2017),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북한의 어휘교육 내용 고찰」, 『문법 교육』 31, 181-212.
 강보선(2020ㄱ), 「통일 대비 국어 문법 교재 개발의 쟁점-내용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문법 교육』 38, 69-98.
 강보선(2020ㄴ), 「통일 과도기 ‘남북한 공통 국어’ 과목의 성격 및 목표」, 『국어교육학연구』 55(1), 5-30.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말글』 72, 31-65.
 거래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2019), 『한눈에 들어오는 남북 어휘 의미·용법』, 서울: 뎀씨터.
 권순희(2018), 「2013년 개정 북한 국어 교과서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53(3), 5-47.
 권순희·강보선·정진석·주재우(2017), 「남북한 초등학교 듣기말하기 교육 내용 비교-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63, 5-27.
 김광해(1998), 「유의어의 의미 비교를 통한 뜻풀이 정교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신청어문』 26, 5-40.
 김진숙·김민성·박창언·이미경·강보선·박수련(2016),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II) -총론, 국어, 사회과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박순경·이민형·강보선·주주자·심광택·김한중·이인정·이나연(2017),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연구 III -총론, 중등 국어과, 중등 사회과를 중심으로』, 충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현호(2016), 『국어교수설계(교원대학)』,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리정용(2005), 『조선어문체론(조선어학전서 3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박소은(2021), 「북한의 문법 교육 내용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명선(2008), 『의미, 텍스트, 교육』, 서울: 한국문화사.
- 신현재(2015), 「초등학교 통일 국어 교과서 개발의 방향 모색 - 통일 국어 교과서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과제 검토」,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5-74.
- 오현아(2021), 「상호 문화 문식성 관점의 통일시대 초등국어교육의 방향 탐색 - 이북 소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제재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6(1), 111-149.
- 이관규(2021), 『북한의 학교 문법론』, 서울: 역락.
- 이상일(2020),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 중등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3), 251-281.
- 정경화·권순희(2019), 「북한 소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언어 규범 교육 내용 분석 - 남북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4(2), 115-151.
- 정진석·강보선·권순희·주재우(2017), 「Comparison of the Reading Content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a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교과교육학연구』 21(3), 197-205.
- 정혜승(2015), 「중국 초등학교 어문 교과서의 체제와 내용 분석」, 『국어교육연구』 59, 245-270.
- 정혜현·진용성(2021), 「남한의 초등학교와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의 계량적 비교 연구」, 『한국어문교육』 35, 117-154.
- 주재우·권순희·강보선·정진석(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 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33, 35-56.
- 진선희(2020),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55(1), 237-264.
- 최미숙(2020),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방향」, 『국어교육학연구』 55(1), 293-321.
- 최영란(2010), 「『문화어학습』으로 본 북한의 문법 교육」, 『국어교육연구』 25, 229-269.
- 통일국어교육연구회(2018), 『한민족 통일시대 초등 국어 저학년 교과서』, 서울: 미래엔.
- 통일국어교육연구회(2020), 『한민족 통일시대 초등 국어 중학년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 연구』, 서울: 미래엔.
- 한명숙(2017), 「통일시대 초등국어 교과서의 명칭과 분책 방안」, 『새국어교육』 111, 33-59.
- Nation, I. S. P. (2013), *Learning Vocabulary in Another Language(2nd)*, Cambridge: Cambridge Applied Linguistics.

‘남북한 공통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의 쟁점

— 어휘 교육을 중심으로

강보선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교육과정에 따른 남한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2013 교육강령에 따른 북한의 소학교 국어 교과서를 비교하여, 분단 시기에 남북이 함께 사용할 ‘남북한 공통 초등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만한 요소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고에서 파악한 쟁점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휘 교육의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둘째, ‘본문 단어의 발음과 표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셋째, ‘헛갈리기 쉬운 말’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넷째, ‘생동한 표현/감각적 표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섯째, ‘의성의태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들은 남북한 초등학교 교과서를 비교했을 때 주요하게 나타나는 쟁점으로서 ‘남북한 공통 초등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들 쟁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어휘 교육, 남북한 교과서, 남북한 공통 교과서

ABSTRACT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Commo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between the Two Koreas”

— Focusing on Vocabulary Education

Kang Bo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outh Korean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s under the revised 2015 curriculum with North Korean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s under the revised 2013 curriculum to examine controversial factors related to vocabulary education in the development of “common elementary Korean textbooks between the two Koreas”. The issues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how to (1) set the “proportion of vocabulary education”, (2) deal with “the pronunciations and spellings of words in the text”, (3) deal with “words that easily confused”, (4) deal with “vivid expressions/perceptive expressions”, (5) deal with the “onomatopoeia and mimetic words”. A solution to these major issues between the two Korea's elementary school textbooks to develop a common elementary Korean textbook for the two Koreas.

KEYWORDS Elementary School, Korean Textbooks, Vocabulary Education, Textbooks from North and South Korea, A Common Textbook between the Two Koreas